

도교육청,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

1일 2시간 이상 놀이시간 확보 · 방과후 과정 1일 8시간 이상 운영 등 담은 계획안 마련 · 시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유아·놀이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비전으로 한 '2021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과정은 놀이중심으로 편성·운영하되 기관 교육철학, 학급특성, 유치원 실정, 유아발달 및 경험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바깥놀이를 포함 1일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시간을 확보해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기후환경·바른 인터넷 사용·아동학대·성폭력·양성평등·다문화·안전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의 연속성, 유아 발달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다만 일기쓰기 등과 같은 초등저학년 수준의 한글교육은 지양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일주일 내내 원격수업 지속 시 주

회 이상은 유·무선 소통 등 다양한 소통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을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고, 개별 보호자 동의하에 1시간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특히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조정 시 학부모 퇴근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조정 등으로 학부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성화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유아 1

인당 주 3개 이하, 1일 1개, 30~60분 이내의 놀이활동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유아의 발달 특성,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를 반영해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유아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편안한 실내 환경 조성, 실외놀이 전용 시설 확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 등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글로벌 인재 양성 본격화

익산외국어교육센터, 3월부터 외국어 프로그램 교육 지원

익산외국어교육센터가 오는 3월 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원어민 보조 교사(6명)와 한국인 과외교사(6명), 제2외국어 강사(4명) 등 외국어 교육전문가들을 갖췄다.

학생들의 다양한 외국어 능력 신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기본과정과 특별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본과정으로는 초등 기본외국어과정, 중등 자유학기제과정, 방과후과정, 방학캠프과정 및 제2외국어 5개 과정(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이며, 특성화고 대상의 취업 지원 독일어 과정과 고교 영어토론반, 시민강좌 및 세계문화축제 등이 특별과정으로 개설된다.

주요 프로그램인 기본외국어과정은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주제 중심 활동 수업이 5일 또는 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5일 과정에서는 하루를 제2외국어의 날로 구성해 학생들이 해당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의 자유학기제 과정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매개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어 및 제2외국어(5개) 몰입형 언어 학습을 위한 방과후 과정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주중 2회, 1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를 확장한 방학 캠프도 계획돼 있다. 특히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독일어 과정과 영어 토론반이 특별과정으로 함께 운영된다.

그 밖에 세계문화축제와 시민강좌(영어 및 중국어)를 마련해 관내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외국어 학습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http://ifl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공립 중등학교 교사 등 최종합격자 390명 발표

전북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선발에 따른 최종합격자 390명을 결정,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에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410명(일반 382명·장애 28명) 선발에 1차 시험에서 602명(일반 593명·장애 9명)이 합격했으며, 2차는 596명(일반 588명·장애 8명)이 응시해 최종합격자는 390명(일반 382명·장애 8명)이다.

개인별 성적은 오는 17일까지 도교육청 은 라 인 채 용 시 스텝(<http://edurecruit.jbe.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중등교사는 제1차 시험의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결과 3급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의 성적에 가산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모집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포함해 제1, 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했다.

제1차 시험은 교육학과 전공시험을, 제2차 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실연능력을 실시했다. 배점은 제1차·제2차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원격콘텐츠 연수를 실시한다"며, "연수 기간과 수강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 2020 교직원 동계 워크숍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0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020학년도 교직원 동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분교 대외협력센터장인 기계과 조숙진 교수의 위촉장 전달식을 시작으로 홍순직 총장의 인사말과 대학혁신지원사업과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3주기 연계성 및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박준 광주보건대 교수의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숙진 교수는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예산분과 자문위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편성 · 학생회실 설치 · 연수 지원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의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에 나섰다.

먼저,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고 참여를 보장한다. 교육과정 중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초·중 10시간, 고등 1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생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회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고,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학생회가 주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를 보장하고자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또한 학생자치 공간(학생회실) 설치를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초·중·고 30개교를 선정하고 1개교당 1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학생자치 공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학교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심사를 거쳐 공간의 적절성, 사업 추진 의지, 학생회 활동 지원 의지, 학생자치 시수, 예산 확보, 학생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

그리고 학교생활규정은 학교구성원

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규정인 만큼 학생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해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학생회 임원과 전북학생참여위원 및 14개 교육지원청 지역학생참여위원 지원 연수(연수 지원), 교원 연수, 학생자치(인권) 토론회 등을 진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간, 공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교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며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장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병원형 위(Wee)센터 3월 개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 학생 전문치료와 대안교육을 동시 지원하는 병원형 위(Wee)센터를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병원형 위(Wee)센터는 상담·진단에 서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과정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고위기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용 대상은 전북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우울증 및 정서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다. 학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원형

위센터에 입소해 최대 1개월 간 치료와 대안교육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원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가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치료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자살예방 이모티콘 제작, 배포, 마음치유·생명지킴이 학교, 24시간 비대면 온라인 상담, 학교 자문의 사단 운영, 자살예방생명지킴이(게이트 키퍼)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